

제 1 교시

문 학

성명

수험번호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파(陽坡) 정(鄭) 상공이 포천 현감으로 부임한 날 밤에 등갓을 씌우고 글을 읽다가, 문득 관아 밖에서 떠들썩하게 소리쳐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곁에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알아보게 시켰더니, 관아의 모든 하인들이 말했다.

“아무 소리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 공은 기이하고 놀라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문이 저절로 열리며, 앞에서 소리치며 길을 이끄는 무리가 곧장 대청 앞으로 들어닥쳤다. 두 줄로 늘어선 붉은 등축이

[A] 땅을 비추는데, 한 귀인이 연각오사모*를 쓰고, 온갖 꽃을 수놓은 비단 도포를 입고, 서대*를 둘렀다. 그가 탄 가마는 여덟 사람이 메었고, 말을 타고 호위하는 것도 매우 성대하였다. 가마 아래의 한 종사가 소리쳤다.

“현감은 대청에서 내려오라.”

정 공은 크게 놀라 급히 아전에게 물었다.

“저 분은 웬 귀인이시냐?”

아전이 말하였다.

“송정*이 고요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정 공은 단정히 앉아 정신을 모았다. 종사가 가마 앞으로 달려 나아가

“이 고을의 현위가 예절을 전혀 알지 못하니, 그 아전을 대신 다스리겠습니다.”

하니, 그 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아전이 그때 마침 공당에서 일을 아뢰고 있었는데, 문득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정 공은 ㉠ 기미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 그 귀인을 절하여 맞이하였다. 현의 아전들이 크게 외쳤다.

“사또께서는 누구에게 절하고 무릎을 꿇으십니까?”

그 귀인이 “좌우 사람들을 물리시오.” 하여, 정 공이 아전들을 물러나게 하자 “아전들에게 내린 벌을 풀어 주어라.” 하니, 아전이 곧 정신을 차렸다. 그 귀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 “나는 개국공신 하륜(河崙)이오. 현감과는 앞뒤로 수백 년의 세월이 서로 다른데, 어찌 내 얼굴 모습을 알 수 있겠소?”

정 공이 절하며 “대인의 공훈이 북두칠성과 나란히 높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하 공이 정색하고 말하였다.

㉢ “나는 평생 만 번 죽을 고비를 드나들며 겨우 가문을 일으켰소. 그런데 후손들이 끝내 불초하여 나무꾼과 목동 사이에 섞여 지내는가?”

“나의 분묘는 돌보는 이가 없어 흙에 묻힌 지 오래인데, 십수 년 전 한 농가가 묘 위에 집을 짓더니 마침내 큰 마을이 되어 버렸소. 하늘이 그대를 빌려 보내어 나로 하여금 뜻을 이루게 하니, 그대가 불쌍히 여겨 주기 바라오.”

말이 끝나자 닭이 울었다. 하 공이 “오래 이야기할 수 없으니 아쉽소이다.” 하고 교자에 올라 떠났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정 공은 하 공이 알려 준 대로 땅을 파 관을 찾아 모시고 임금께 아뢰어, 적손 하황을 녹용하고 개장을 마쳤다. 그 뒤 관아로 돌아와 재계하며 하 공이 사례하러 오기를 기다렸다.

삼경이 끝날 무렵 하 공이 과연 나타나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다.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달라 걸초보으할 길이 없구려. 허나 사또께서는 저승의 보답을 받아 수명이 연장될 테니 축하하오.”

(중략)

“지금 우리 조정 신하들은 군사를 일으켜 청나라의 죄를 묻고 대의를 펴고자 합니다. 이 일의 길흉이 어떻겠습니까?”

㉣ “길흉은 너무도 알기 쉬우니 물을 것도 없소. 조정 신하들이 존망을 걸고 변방에서 죽는다면 죽어도 이름이 남을 것이오. 그러나 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맑은 논의의 바탕으로 삼고, 대의를 출세의 계단으로 삼으며, 속으로는 오랑캐를 두려워하면서 겉으로만 명성을 얻는다면 인정할 만한 점을 찾지 못하겠소.”

“사또는 아직도 탁상공론을 하고 있소? 병자년에 저들의 기병 수천이 우리 영토에 들어왔지만 저들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 하나 없더니 마침내 도성까지 침략당했소. 젓먹이를 호랑이 굴로 보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

“참으로 말씀하신 그대롭니다.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겼으니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유한 권세가에 여덟 가지 일마다 담당하는 종이 있소. 중하나가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한 가지 일에 폐단이 생기오. 그러나 용렬한 중을 도태시키고 부지런한 자를 대체하면 모든 일이 잘 돌아가게 될 거요. 하물며 나랏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소?”

㉤ 정 공이 절하여 사례하고 말했다. “간명하면서도 핵심을 찌른 말씀이라 마음과 몸이 모두 경복하게 만듭니다.”

정 공이 큰방으로 모셔 가서 술과 과일을 올렸다. 하 공은 한번 씹자마자 다 먹고, 춤을 추듯 걸어 나갔다. 정 공이 문까지 전송하고 들어와 보니, 술과 안주 상이 아까 비어 있던 것이 갑자기 가득 차 있었다. 정 공은 오래도록 탄식하며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였다.

훗날 정 공의 공명과 후손의 번성은 모두 하 공의 말과 부합하였다.

*연각오사모: 일품 관모의 한 종류.
*서대: 일품 벼슬아치의 띠.
*송정: 관아 집무 공간.

- 이현기, 「포천이문」 -

1.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에 대한 경외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③ 같은 공간에서 인물에 따라 다르게 감지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비현실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인물의 말과 행동을 교차하며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⑤ 인물의 내적 동요를 행동으로 전환하여 서술함으로써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2.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태화가 관아 밖의 소리를 확인하게 한 것은 자신이 들은 소리와 주변의 반응이 불일치하는 데서 비롯된 당혹감 때문이다.
- ② 정태화가 ㉠을 보고 귀인을 맞이한 것은 아전에게 닥친 위해의 정도가 자신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③ 아전들이 정태화의 행동을 의아해한 것은 정태화가 맞이하는 대상을 아전들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④ 정태화는 ㉠을 통해 귀인의 내력을 짐작하고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 맞이한 것이다.
- ⑤ 귀인이 좌우 사람들을 물리게 한 뒤 아전의 벌을 풀어 준 것은 정태화의 대응이 자신의 기대에 부합한 결과이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상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함에 불만을 드러내고, ㉣에서는 상대의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자신의 업적을 돌아보며 후손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에서는 진정한 절개와 명분만의 허세를 구분하고 있다.
- ③ ㉡에서는 후손의 안위를 걱정하여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에서는 상대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시간적 거리를 들어 상대가 자신을 모를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에서는 당대의 논의를 긍정하며 조정의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상대가 제시한 현안에 대해 확답을 유보하고, ㉣에서는 상대의 권위에 압도되어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고 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문단편소설에서 산 자와 초현실적 존재의 대담은 독특한 서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초현실적 존재는 시간적 거리나 초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현실의 인물이 직접 개진하기 어려운 견해를 거침없이 제시할 수 있으며, 현실의 인물은 이에 대한 반응을 통해 당대의 통념이나 지배적 논리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대담 구조는 작가가 당대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특정 인물의 발언으로 우회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서사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① 하륜이 개국공신으로서의 지위와 수백 년의 시간적 거리를 밝힌 것에서, 초현실적 존재가 초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발언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정태화가 군사를 일으켜 청나라의 죄를 묻겠다는 조정의 논의를 전한 것에서, 현실의 인물이 반응을 통해 당대의 지배적 논리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하륜이 진정한 절개와 명분만의 허세를 구분하며 북벌론을 비판한 것에서, 현실의 인물이 직접 개진하기 어려운 견해를 초현실적 존재가 거침없이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하륜이 권세가의 종 비유를 들어 국정 쇄신의 원리를 말한 것에서, 작가가 민감한 현안에 대해 특정 인물의 발언으로 우회하여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정태화가 국정에 폐단이 생겼음을 인정하며 해법을 구한 것에서, 현실의 인물이 반응을 통해 당대의 통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나)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A]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 눅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눅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B]

날이 흐리고 풀이 눅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눅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눅는다

[C]

- 장석남, 「배를 밀며」 -

(다)

관(管) 땅의 전투 당시, 안릉(安陵) 사람 축고(縮高)의 아들이 진(秦)나라를 위해 관 땅의 수비대장이 되었다. 이에 위(魏)나라의 신릉군(信陵君)이 안릉군(安陵君)에게 사신을 보내어 축고를 위나라로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축고가 이를 사양하자 신릉군은 크게 노하여, 다시 사신을 보내 안릉군을 위협하였다. 축고가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이 머무는 숙소로 찾아가 스스로 목을 찢러 자결하였다.

이를 두고 세간의 혹자는 “축고는 진정 의열*(義烈)한 장부이다”라고 평한다. 그러나 나는 그의 죽음이 의(義)와 용(勇)을 도리어 훼손했다고 본다. ㉠ 의리상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죽음을 택하는 것은 ‘용’을 상하게 하는 것이요, 결코 죽지 않아서는 안 될 상황에서 죽지 않는 것은 ‘의’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의와 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군자(君子)라면 응당 하지 않는 법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글쓴이는 축고의 아들이 진나라를 위해 관 땅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축고 부자가 위나라를 향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처지였음을 밝히고, 신릉군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마땅하나 재차 사신이 왔을 때 성급히 자결하여 다시금 울고 그 림을 다투지 않은 것은 종용*(從容)함이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 신릉군은 본디 어질어 선비에게 몸을 낮추는 인물이지, 사납고 제멋대로 구는 자가 아니다. 그는 과거 진비(晉鄙)의 군사 통수권을 빼앗아 조(趙)나라를 구원한 뒤 다소 공을 뽑내는 기색이 있었으나, 당저(唐雎)가 한 번 깨우쳐주자 즉각 안색을 바꾸고 뉘우친 바 있다. ㉢ 이를 통해 공자가 참으로 현명하며 천하에서 가장 대의에 순복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 어찌 축고 홀로 이를 듣지 못하였단 말인가?

그러므로 축고가 택해야 할 올바른 도리는, 신릉군의 사신이 재차 왔을 때 다시금 의(義)로써 거절하는 것이었다. 만분의 일의 확률로 신릉군이 또다시 듣지 않는다 해도, 끝내 듣지 않음을 확

인한 뒤에 죽어도 결코 늦지 않았을 것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글쓴이는 축고가 의로써 설득했다면 진·위 양국이 보전되고 관 땅이 화를 면하며 축고도 목숨을 잃지 않아 한 번의 거조로 세 가지 이로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주장을 반박하는 물음에 대해, 신릉군의 완곡한 태도를 근거로 재반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축고는 사람을 감별할 줄 몰랐던 것이다.

㉣ 그는 지척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도랑에 빠져 죽는 필부의 알량한 지조*를 행하였고, 결국 공자로 하여금 끝내 악명을 뒤집어쓰게 만들었으니, 이는 축고가 남의 허물을 조성해 준 셈이다. 그러므로 축고의 죽음은 ‘반드시 죽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헛되이 죽은 것’에 불과하다.

㉤ 비록 그러하나, 축고에게는 타인보다 뛰어난 고결한 행실 두 가지가 있다. 세상에 생(生)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거늘 축고는 능히 죽음을 택하였고, 죽음보다 어려운 일이 없거늘 축고는 기꺼이 이를 실행해 냈으니 이것이 그 첫째이다. 또한 전국시대(戰國時代)를 당하여 유세(遊說)하는 선비들이 오로지 거짓된 권모술수만을 좇을 때, 축고 홀로 군신(君臣)과 부자(父子)의 의리를 끌어안고 끝까지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 둘째이다. 이 두 가지 미덕을 지녔으니, 축고 또한 죽히 어질다 하겠도다!

* 의열: 의롭고 격렬함.

* 종용: 차분하고 여유로운 태도.

* 필부의 알량한 지조: 거시적 대의를 보지 못하고 좁은 명분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행위를 이룸.

- 유한준, 「축고에 대하여 논함」 -

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감각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공간의 극한적 속성을 형상화하고, (나)는 행위의 속도를 비교하는 표현을 반복하여 대상의 역동적 면모를 부각한다.
- ② (가)는 계절의 변화를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나)는 행위를 점층적으로 확대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③ (가)는 대상의 속성을 열거하여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나)는 의인법을 활용하여 대상들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부각한다.
- ④ (나)는 가정의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의 인식 과정을 드러내고, (다)는 비유적 표현을 중심으로 대상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를 점층적으로 강화하여 주제를 드러낸다.

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에서 화자가 놓인 세계는 외부의 힘에 의해 극한까지 밀려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시적 대응은 이원적 구조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 외부의 힘이 화자를 압도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면, 후반부에서는 화자가 그 긴장을 회피하지 않고 내면의 전환을 통해 상황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이르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화자의 인식 전환은 상황의 소멸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획득되는 정신적 경지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북방으로 휩쓸려’ 온 것은, 외부의 힘이 화자를 극한의 공간으로 내몬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에서 하늘마저 한계에 이른 공간은, 외부의 힘이 화자를 압도하는 전반부의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에서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은, 화자가 그 긴장을 회피하지 않고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에서 화자가 감각을 닫고 내면으로 향하는 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내면의 세계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에서 극한의 겨울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상황 속에서 획득된 정신적 경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7.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울었다’, ‘누웠다’가 과거형으로 서술된 것은, 풀이 바람과 처음 맞닥뜨린 상황을 지나간 사건으로 제시하여 [B]에서 반복될 움직임의 기점을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
- ② [A]에서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 다시 누웠다’는, 외부 환경의 악화에 따라 풀의 저항이 강화되는 계기가 됨을 보여 준다.
- ③ [B]에서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는, 풀이 바람의 위세에 눌려 바람이 오기 전에 미리 몸을 낮추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 ④ [B]에서 ‘발목까지 / 발밑까지 눕는다’는, 눕는 범위의 확대를 통해 풀이 완전히 제압되었음을 드러낸다.
- ⑤ [C]에서 ‘풀뿌리가 눕는다’는, [A]와 [B]에서 ‘풀’이 눕던 것과 달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과 반드시 죽어야 하는 상황을 구분하여, 축고의 자결을 비판하기 위한 원칙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은 신릉군이 본디 어질고 선비에게 몸을 낮추는 인물임을 밝혀, 축고가 의로써 다시 거절했다면 신릉군이 받아들였으리라는 판단의 근거로 기능한다.
- ③ ㉡은 신릉군이 대의에 순복하는 인물이었음을 축고가 알아차렸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축고의 죽음에 대한 신릉군의 책임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은 축고의 죽음을 좁은 명분에 매인 행위로 규정하는 비유를 통해, 축고의 자결이 대의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⑤ ㉡은 축고에 대한 비판의 논지를 전환하여, 축고에게도 죽음을 택하고 의리를 지킨 미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양보적 논증의 기능을 한다.

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점에서 취한 자세로 결단의 순간을 나타내고, ㉣은 눕고 일어남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이어지는 과정을 나타낸다.
- ② ㉢은 이전의 움직임이 중단된 정지 상태를, ㉣은 이전의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환을 나타낸다.
- ③ ㉢은 주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달라지는 자세를, ㉣은 주변의 변화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자세를 나타낸다.
- ④ ㉢과 ㉣은 모두, 외부의 상황이 안정된 뒤에 주체가 택하게 된 최종적 자세를 나타낸다.
- ⑤ ㉢과 ㉣은 모두, 주체가 상황을 관조하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자세를 나타낸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와 (다)에는 주체가 외부의 힘에 대응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주체의 대응 방식은 외부의 힘 자체만이 아니라, 주체가 그 힘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외부의 힘에 대한 인식이 대응의 양상을 형성하고, 그 대응이 주체와 주변에 미치는 결과를 통해 대응 방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 ① (나)에서 ‘풀’이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 것은, 외부의 힘에 앞서 반응하는 대응의 양상으로, 주체가 바람의 움직임을 체득한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② (다)에서 글쓴이가 ‘신릉군은 본디 어질어 선비에게 몸을 낮추는 인물’이라고 밝힌 것은, 축고가 인식했어야 할 외부의 힘의 성격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풀’이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는 것은, 외부의 힘에 대한 대응이 주체에게 가져다준 긍정적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④ (다)에서 축고의 죽음이 ‘남의 허물을 조성해 준 셈’이라는 것은, 주체의 대응이 주변에 미친 부정적 결과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겠군.
- ⑤ (다)에서 축고가 신릉군의 인물됨을 정확히 파악했기에 자결이라는 불가피한 대응을 선택한 것은, 외부의 힘에 대한 인식의 대응의 양상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압부분의 줄거리**] 용연 출신의 간난이는 서울의 방적공장 여공으로 일하며 조직 활동가 태수의 지도를 받아 왔다. 같은 고향의 선비를 서울로 데려와 함께 지내던 간난이는, 동료 인숙이와 함께 새로 낙성된 인천 대동방적공장에 입사하여 기숙사에 들어간다. 세 사람은 번호를 받고 제사 작업에 투입된다.

저편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소음과 돌아가는 와꾸*의 소음이 합쳐서, 공장 안은 정신 차릴 수가 없이 소란하였다. 선비는 멍하니 서서, 간난이가 실 켜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간난이는 늘 해 보던 것이 되어서 모든 것을 손익계 하였다.

“간난아, 내 줌 하리!”

선비가 그의 귀에다 입을 대고 말하였다. 간난의 귀밑으로는 땀이 빗방울같이 흘러내린다. ㉠ 간난이는 생긋 웃어 보이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여전히 실을 골라 사기바늘에 붙인다.

“처음 와서도 아주 잘 해.”

바라보니, 감독이란 자가 마주서서 들여다본다. 그리고 선비를 바라보며,

“어서 잘 배워야 해…… 그래서 빨리 일을 해야 돈을 벌지.”

㉡ 선비는 가만히 쏘는 자신이 끝없이 부끄럽게 생각되었는데, 또 이런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다. 감독은 선비의 숙인 불을 걸 눈질해 보며 그들의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전깃불이 환하게 들어왔다. 선비는 놀라 전등불을 바라보

며, 그리고 그의 눈앞에 벌여 있는 온갖 기계며 여직공들을 볼 때, 자기는 어떤 판 세계에 들어왔는가? 하리만큼 그의 주위가 변한 것을 느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사이렌이 울려 교대한 뒤, 석유 냄새가 나는 안남미* 밥을 먹은 세 사람은 야학에 참석한다. 감독은 공장의 기숙사·야학·일용품 배급 등이 직공들을 위한 것이며, 저금 제도를 이용하면 삼 년 후 결혼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말을 이었다.

“이 공장에서는 여공의 장래를 그르칠까 봐 풍기를 엄밀히 감독하는 까닭에 개인의 외출을 불허하느니만큼 여러분은 껍박이 그리울 것이오. 그러나 매해 춘추로 좋은 음식을 맨들어 가지고 산보를 가오. 오는 봄에는 여러분에게 구두를 원가로 배급해야 신기고 월미도에 가서 원유회를 할 계획을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중이오…….”

여공들의 눈에는 희망과 환희의 빛이 떠올랐다. ㉢ 이때 간난이는 별떡 일어나서 감독의 말을 일일이 반박하고 싶은 흥분을 가슴이 뜨겁도록 느꼈다.

[A] “또 이 공장에서는 삼 주일에 한 일요일은 휴일로 정하고 그날은 앞의 운동장에서 운동과 유희를 시키우.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참 이 공장의 특전이오. 마주막으로 이 공장을 내 공장으로 생각하고 소제를 깨끗이 하며 또 일의 능률을 내어서 임금 외에 상금도 많이 타도록 하오. 그러나 게으른 사람에게는 도리어 벌금이 있을 터이니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오.”

그들은 일시에 일어나 감독에게 경례를 하고 강당에서 물러나왔다. 또다시 종이 울렸다. 이 종은 자라는 종이라고 그들은 소변대변을 보고 나서 방안의 전깃불을 켜다.

간난이는 곤하던 차라 한잠 푹 자고 나서 별떡 일어났다. 사방은 고요하다. 다만 공장에서 들려 오는 기계 소리만이 요란스레 들릴 뿐이다. ㉣ 그는 창문 곁으로 와서 우두커니 밖을 내다보았다. 유리문 밖에 운동장을 거쳐 높이 솟은 저 담! 간난이는 아까 이 기숙사에 들어오면서부터 저 담이 몹시 걱정이 되었다. 행여나 그 담 밑으로 어떤 구멍이라도 발견할까 함이었다. 그러나 벽돌로 까맣게 올려 쌓고 그 밑으로 몇 길이나 시멘트 콘크리트를 한 그 철벽 같은 담에서는 바늘구멍만한 것도 하나 얻어 볼 수가 없었다.

강당의 시계가 세시를 땅땅 친다. 그가 자리에 누울 때 선비가 돌아누웠다.

“변소에 갔됐지.”

“그런데 선비야, 너 아까 감독이 한 말을 다 끝이들었니?”

“난 몰라, 그런 것…….”

“선비야! 그런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 저 봐라, 지금 야근까지 시키면서도 우리들에게 안남미 밥만 먹이고, 저금이니 저축이니 하는 그럴듯한 수작을 하여 우리들을 속여서 돈 한푼 우리 손에 쥐어 보지 못하게 하고 죽도록 우리들을 일만 시키자는 것이란다. 원유회를 한다느니, 야학을 한다느니, 또 몸을 튼튼케 하기 위하여 운동을 시킨다는 것도, 그 이상 무엇을 더 빼앗기 위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작이란다…….”

[B] “선비야! 우리들을 부리는 감독들과 그들 뒤에 있는 인간

들은 덕호보담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무서운 인간이란다.”

선비는 그렇지 않아도 수염을 올려붙인 호랑이 감독이 자기게로만 눈꼬리를 돌리고 웃는 모양이 무섭고도 보기가 싫었는데 간난의 말을 듣고 나니 그 눈매가 곧 눈앞에 나타나 보였다. ㉠ 그리고 그 감독이 덕호로 변하여지는 것을 그는 가슴이 울울하도록 느꼈다.

“선비야! 너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하지 않지? 좀 지나면 다 안다.”

간난이는 선비의 허리를 껴안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 와꾸: 실을 감는 틀(자세).

* 안남미: 당시 동남아시아(안남)에서 수입한 질이 낮은 쌀.

- 강경애, 『인간문제』 -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감독의 질책에 의한 것으로, 간난이는 이를 계기로 감독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된다.
- ② 감독의 연설에 여공들이 희망을 보인 것과 간난이가 이를 속임수로 인식한 것은, 공장의 현실에 대한 인물들의 이해가 서로 다른 수준에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감독이 간난이의 작업을 칭찬한 것은 간난이의 태도를 다른 여공에게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④ 선비가 자신의 주위가 변한 것을 느낀 것은 간난이와 감독 사이의 관계를 목도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 ⑤ 간난이가 선비에게 감독의 말을 곧이듣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은, 감독의 연설에 호응한 여공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일깨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간난이가 선비의 요청을 거절하며 웃어 보인 것은, 선비가 위험한 작업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전하면서 부담을 덜어 주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 ② ㉡에서 선비가 부끄러움에 이어 기가 막히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처지와 감독의 말이 겹치면서 생겨난 것이며, 감독이 선비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은 이와 다른 맥락의 행동이다.
- ③ ㉡에서 간난이가 감독의 말을 반박하고 싶은 흥분을 느낀 것은, 감독이 내세우는 처우의 이면을 꿰뚫고 있으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드러낸 것이다.
- ④ ㉡에서 간난이가 담을 걱정한 것은 기숙사 밖으로 통할 수 있는 통로를 찾으려는 구체적인 목적과 관련되며, 공장의 물리적 통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다.
- ⑤ ㉡에서 선비가 감독이 덕호로 변하여지는 것을 울울하게 느끼는 것은, 간난이가 감독에 대해 한 말이 선비에게 강한 정서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1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감독은 직공들의 생활 개선을 약속하여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있으며, [B]에서 간난이는 감독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선비에게 토로하고 있다.
- ② [A]에서 감독의 말에 여공들이 호응하는 것은 감독의 진심이 전달된 결과이며, [B]에서 간난이의 경계는 여공들의 호응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A]에서 감독은 상벌을 활용하여 노동 규율을 강조하고 있으나, [B]에서 간난이는 감독의 경고에 위축되어 선비에게 불안감을 전하고 있다.
- ④ [A]에서 감독이 제시하는 처우는 직공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B]에서 간난이는 그 처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선비에게 알리고 있다.
- ⑤ [A]에서 감독이 복지 시책을 내세우는 것은 통제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며, [B]에서 간난이가 이를 반박하는 것은 감독 논리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14. <보기>를 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인간문제』는 본래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기획되었으나, 연재 과정에서 ‘인천’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도입되었다. 작가는 용연으로 대표되는 농촌을 피착취의 공간으로 한정하고, 인천의 대공장이라는 도시 공간을 끌어들이 노동자들의 각성과 연대의 가능성을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공간 이동은 인물들이 개인적 피해의 기억을 구조적 착취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 ① 감독이 간난이의 숙련을 언급하며 선비에게 일을 빨리 배우라고 독촉하는 것은, 대공장이라는 공간에서 노동자를 능률 단위로 관리하는 구조적 착취의 양상이 드러나는 것이겠군.
- ② 간난이가 기숙사에서 선비에게 저금과 저축, 원유회의 실체를 하나씩 밝히는 것은, 대공장에서의 구조적 착취를 인식한 인물이 아직 각성하지 못한 인물에게 그 인식을 전하려는 연대의 실천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선비가 전깃불 아래에서 자신의 주위가 딴 세계처럼 느껴지는 것은, 농촌에서 대공장으로서의 공간 이동이 인물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감각적 충격을 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선비가 감독이 덕호로 변하여지는 것을 느낀 것은, 간난이의 말을 통해 개인적 피해의 기억이 구조적 착취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간난이가 감독들을 덕호에 비유하며 선비에게 말하는 것은, 개인적 피해의 기억을 매개로 구조적 착취의 실체를 전달하려는 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17.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시대의 누정·강호 시가에서 자연 경관의 형상화는 화자의 세계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자연의 경물을 감각적으로 포착하는 화자는 대상의 역동적 변화에 주목하며 끊임없이 이에 동참하는 자세를 취하는 반면, 자연에서 이념적 가치를 발견하는 화자는 경물을 매개로 자신의 출처를 해명하거나 도학적 실천의 계기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자연 속 생활을 서술하는 방식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형상화하는 방식에도 반영된다.

- ① (가)에서 자연물의 역동적 변화에 주목하는 모습은, 경물을 감각적으로 포착하여 이에 동참하는 화자의 자세를 보여 주는군.
- ② (나)에서 ‘학주자를 하리라’는, 자연에서 이념적 가치를 발견하여 도학적 실천의 계기로 삼는 화자의 자세를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는, 자연의 변화에 끊임없이 동참하는 자세가 생활 서술 방식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가)의 자연 속 풍요로운 삶을 사는 모습과 동시에, ‘임금의 은혜’에서 자신의 출처를 해명하는 화자의 인식을 읽을 수 있군.
- ⑤ (나)에서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는, (가)에서 자연의 다양한 면모에 분주히 몰입하는 화자와 대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월가’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